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96 겨울 계절학교 다음 주간이 절정

영아부 ~ 초등6부, 고등부, 청년1부, 사랑부, 에바다부, 영어주교 열려
충현기도원 및 교회당에서



교 회학교 각 부서의 '96 년도 겨울 계절학교 가 중등2·3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려 다음 주간에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이미 겨울 계절학교를 성료한 교회학교는 중등2·3부(1.22~1.24), 중등1부(1.29~3.1), 대학부(1.29~2.2), 실업인전도회(2.1, 2), 새가정부(2.10), 장년1부(2.17, 18) 등이다.

그리고 앞으로 겨울 계절학교가 열릴 교회학교로는 영아부(2.27~28)와 유아부(2.27~28), 유치부와 초등1~6부(2.26~28), 고등부(2.26~2.29), 청년1부(2.27~3.1), 청년2부(3.4~5), 사랑부(3.1), 에바다부(2.26~28), 그리고 영어주교

(3.1)이다.

이번 겨울 계절학교의 대표적인 특징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예년과는 달리 신나게 즐기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지양하고, 성경읽기 프로그램과 찬송가 부르기에 역점을 둔 프로그램을 보고 처음에는 다소 실망하는 눈치들이었지만, 함께 찬송을 부르며 범위를 정해놓고 말씀을 읽어가는데 모든 두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히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계절학교를 마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음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에도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

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네(히 4:12) 위대한 말씀임이 입증된 계절학교였다.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남은 부서의 겨울 계절학교에서도 이와같은 말씀의 역사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후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열릴 교회학교 각 부서의 겨울 계절학교의 대략적인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수련회중 같은 시간대에 각각 다른 방에서 강의되는 선택식 특강 중에서 가장 관심있는 한 강의를 골라 참석하기 위해 게시된 신청서에 싸인하는 대학부 회원의 진지한 모습

◀ 작년 겨울성경학교 때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영아부 아기들의 밝고 예쁜 모습

부서	장소	일자	주제	강사
영아부	선102호	2.27~28	경건한 예배! 경건한 아기!	박도수
유아부	교 212호	2.27~28	열매맺는 나무	계선화
유치부	교205,202	2.26~28	깨어 일어나라	정연희
초등1부	교307호	2.26~28	기도하는 어린이	손미희
초등2부	교314호	2.26~28	예수님! 내 맘속에 계세요	송향자
초등3부	교407호	2.26~28	찬양하세 여호와께	오인숙
초등4부	교414호	2.26~28	하나님을 알자	박노철
초등5부	교514호	2.26~28	천국백성이 되자	김필수
초등6부	교507호	2.26~28	기도! 기도! 기도!	조동원
고등부	충현기도원	2.26~29	하나님 나라의 불씨가 되자	한근수
청년1부	충현기도원	2.29~3.1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김동석
청년2부	갈릴리홀	3.4~3.5	제자도와 청지기직	김경진
사랑부	교107호	3.1	효도하는 어린이	장경철
에바다부	교212,선102	2.26~28	주님의 일꾼이 되자	이준우, 이영빈
영어주교	가나홀	3.1	세상의 빛	이승림



96년도 24시간 연속기도회 일정표

2월 21일(수) 낮 12시, 제1교구부터

- 일제 / 1996. 2. 21(수) 정오 ~ 1996. 4. 21(주일) 정오
- 개간 / 60일간
- 장소 / 24시간 연속기도회실(나사렛홀 입구)
- 방법 / 개인당 1시간
- 제1교구부터 제11교구까지 각 5일간
- 제12교구 3일간, 제13교구 2일간
- 교구별 실시 /
- 제1교구 2.21(수, 낮12) ~ 2.26(월, 낮12)
- 제2교구 2.26(월, 낮12) ~ 3.02(토, 낮12)

- 제3교구 3.02(토, 낮12) ~ 3.07(목, 낮12)
- 제4교구 3.07(목, 낮12) ~ 3.12(화, 낮12)
- 제5교구 3.12(화, 낮12) ~ 3.17(주일, 낮12)
- 제6교구 3.17(주일, 낮12) ~ 3.22(금, 낮12)
- 제7교구 3.22(금, 낮12) ~ 3.27(수, 낮12)
- 제8교구 3.27(수, 낮12) ~ 4.01(월, 낮12)
- 제9교구 4.01(월, 낮12) ~ 4.06(토, 낮12)
- 제10교구 4.06(토, 낮12) ~ 4.11(목, 낮12)
- 제11교구 4.11(목, 낮12) ~ 4.16(화, 낮12)
- 제12교구 4.16(화, 낮12) ~ 4.19(금, 낮12)
- 제13교구 4.19(금, 낮12) ~ 4.21(주일, 낮12)

주간충현(계간충현)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간충현(계간충현)에서는 보다 더 감동적이고 친근한 신문으로서 한 걸음 더 모든 독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생활학교 주옥같은 원고를 모집합니다. 혼자 가슴 속에 묻어두기에는 아까운 산 체험과 소중한 이야기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간충현(계간충현)으로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원고종류 / 간증, 수필, 시(동시), 제언, 일기, 서간문, 사평, 이런 일은 고집시다, 각 부서 소식, 만평, 소설(동화), 콩트, 기타

(다만, 계간충현 봄호(3월말 발간 예정) 원고는 예배와 관련된 아름다운 추억이나 개신해야 할 점, 은혜스러운 간증 등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우선

선별하여 게재하겠습니다.)

2. 원고파달 / ① 주간충현은 매달에 없습니다. 다만 세사성이 있는 원고나 뉴스 종류는 게재될 전 주일 찬양예배 전까지이며, 특별한 경우는 수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세요.

② 계간충현 봄호 원고는 2월말(2월 29일)까지 보내주세요 바랍니다.



충현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찬송

(시 13:1-6)

시편 13편은 오랫동안 환난을 당하는 다윗 장군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감사 찬송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구국공신인 다윗 장군이 가는 데마다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조금도 지나친 것이 없을 만큼 공을 세웠건만 그는 역을하게도 역적으로 몰려서 몇번이나 죽을 뻔하고 이제는 망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힘든 일이 없는데 다윗 장군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크면 임금이 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늘 도망을 다니는 위치에서 생각을 해보니 '일각이 여삼추' 갑니다.

다윗이 죽을 뻔 죽을 뻔하고 궁궐을 떠나고 자기 집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세월이 길면 길수록 마음을 같이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갑니다. '다윗 장군을 따라다니다가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다윗 장군이 훌륭하긴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다윗 장군을 따라다니면 우리 자신에게는 손해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마음에 의심을 한 친구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갑니다. 원수의 세력은 날마다 강해지는 것이 눈앞에 뚜렷이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를 속히 돌보아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잠깐 있다가 자기에게 올 큰 복이 기다리는 것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육신은 비록 괴롭지만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내용을 기록한 시입니다.

1. 어느 때까지니이까(1-2)

친구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갈 때에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는 질문을 네 번이나 곱씹어서 합니다.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는 말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13:1)라고 했습니다. "엄마, 엄마!" 함만 찾아봐도 엄마가 대답해주지 않으면 위험한 때에 놓여 있는 어린이가 얼마나 게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데 대답하지 않으시게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이것에 언제까지니이까 하는 안타까운 말의 의미입니다. 다윗 장군이 기다리다 기다려 지쳐서 "하나님! 하나님! 찾아도 대답도 안하시렵니까?"에 말합니다. "언제까지 대답도 안할렵니까?"

(2) 속히 면회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셨나이까?" (13:2)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면회하면 달려들어 '어떻게 할 참이요?'나 살려줄 것입니까, 안 살려줄 것입니까? 해보겠는데 면회도 안해 주

다. "하나님 면회 안해 주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것이 두번째 말입니다.

생명은 교제하는 동안에만 삽니다. 나 못가지는 나무 뿌리의 잔액이 통하는 시간만 자라나고 열매맺고 꽃피웁니다. 이 연락하는 줄이 끊어지면 나 못가지는 죽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그 시간이 큰일나는 시간입니다. 면회를 못한다는 말은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찾아도 대답도 안하고, 하나님 하나님 찾아도 면회를 안해 주기를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3) 속히 근심을 몰아내 주십시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13:2)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 친구는 하나 둘 떠나가고, 원수는 점점 강성해지고, 몸은 피할 데가 없이 점점 위태로워지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살만한 가망이 안보입니다. 혼자 생각해 보니 근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 하는 말입니다.

(4)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3:2)라고 했습니다. "원수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의인들은 하나 둘 죽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 제가 잘난 것처럼 뽐내는 것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려나이까? 심판을 언제까지 아니하시렵니까? 원수들이 뽐내는 모습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시렵니까?"

2. 어찌하시렵니까(3-5)

(1) 다윗은 세 가지 가정법을 쓰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①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어찌 하시렵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잠까 하오며" (13:3)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 근심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내 영의 눈이 어두워 앞에 안보여서 죽음의 잠을 잠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② 의인이 발붙일 데 없이 망하면 어찌 하시렵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었다 할까 하오며" (13:4)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의인을 따라 다니다가 마침내 의인을 다 죽여 버리면 의인이 발붙일 데가 없어지고 말겠는데 그래도 좋습니까?"

③ 악한 자들이 개선을 부르면 어찌 하시렵니까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

"어렵지만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이 생겨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영의 눈이 밝아져서 앞날을 바라보게 되고, 앞날을 내다보니 기쁨이 넘쳐서 찬송 부르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나는 평생 찬송하겠나이다." 다윗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빠랄까 하나이다" (13:4)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지할 데 없어 흔들릴 때에 나의 원수들은 승리했다고 기뻐하며 승리의 개선을 불러도 좋습니까?"

(2) 이 세 가지 두려운 일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 두 가지를 주십시오

① 속히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괴로워도 믿음을 지키고 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칠치고 있는 종의 기도를 빨리 들어 주십시오.

②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의 입이 열리고 찬송의 입이 열리고 전도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또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마귀의 음성에 속으면 큰 일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의 강의를 귀로 듣습니다. 설교를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에 제일 많이 기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눈으로 실물을 본 것입니다. 아무데는 나무가 있다, 아무데는 산이 있다 눈으로 실물을 본 것이 머리에 기억된 3분의 2 이상의 것이 됩니다. 열 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본 것이 큰 공부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면 새 한 마리 꽃 한 송이를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의 언덕이 높아서 영의 눈이 막힙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근심이 가리워서 앞이 안보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욕심에 눈이 가리워서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은혜받으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스테반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몸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쁨에 넘쳐서 전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3.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6)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13:6)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몸은 비록 괴롭지만 영의 은혜를 받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



자하심을 믿고 새 힘이 생겼습니다.

●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을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함께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그 기도속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야곱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와 같이 나도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곧 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사람에게 의논하면 어려운 일이 두 가지 세 가지 늘어납니다. 하나님께 의논해야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잠깐만!" 그러면 더 큰 복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농부가 농사지를 때에 여름에 땀이 나고 가을에 풍년들 것을 바라보면 피곤한 것도, 땀나는 수고도 잊어버리는 것처럼 몸은 비록 괴로우나 잠깐만 기다리면 수고한 대가의 복이, 더 큰 영광이 올 것을 내다보니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영의 눈이 밝아져서 장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래를 보니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오니 잠깐 있다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를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렵지만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이 생겨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영의 눈이 밝아져서 앞날을 바라보게 되고, 앞날을 내다보니 기쁨이 넘쳐서 찬송 부르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나는 평생 찬송하겠나이다." 다윗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하여 응답받고 평생에 찬송을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하며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

바로 잡습니다!

지난 주일 주간충현(355호) 2면 2단 1행의 '끊어지는'을 '끊어지지 않는'으로 바로 잡습니다.

◀ 설을 맞으며 ▶

설날 아침 가정예배 지침



김찬곤

(목사, 제3교구, 교구위원회 지도)

지침

- 1) 마음 가짐을 단정히 한다.
- 2) 설날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께 온 가족 친지들이 모여 감사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장만한 음식을 먹는다.
- 3) 웃어른과 친척을 찾아가 설날 축하인사를 나눈다.

말씀

- 제목: 부자와 나사로
- 본문: 누가복음 16장 19~31절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죽음 후에 되어질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유일한 내용입니다.

1. 부자와 나사로

1) 하나는 부자였고, 또 다른 하나는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거지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부자처럼 이를 거절하지 말고 올 한해 열심으로 선한 씨를 뿌려봅시다.

2) 그 결과 부자는 죽은 후에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 상태는 무척 괴로운 모습이었습니까? 어느 정도였을까요? 24절에 "아브라함아,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허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

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한 방울의 물이라도 필요했겠습니까.

3) 그러나 부자는 이 간청을 거절당해야 했습니다.

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으니 지금은 고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은 위로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오래가야 7, 80년이고 장수한다고 해도 100살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기를 원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곳에서, 고통이 아닌 위로를 받으면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② 두번째 이유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서로 건너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작정된 길은 다시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4) 부자는 다시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 자신을 위한 것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포기를 하였지만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직도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고 있는 다섯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간청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상에 남아서 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지금 자신이 처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

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사후의 세계에 대한 비밀을 말해 주어도 믿지 않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2. 우리는 여기서 선조들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 우리의 선조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면 그분은 지금 나사로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말할 것입니다. "나와 같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고 이 좋은 곳에서 나와 함께 살자."

우리의 선조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그분은 지금 부자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제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은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라."

2) 언제부턴가 우리의 철은 조상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풍속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속을 잘 지키면 효성스러운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만큼 '효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종교도 드물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후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조들이 사후 세계에서 자손이나 친지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손이나 친지들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효도요 복받는 비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식구 모두가 구원받고 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

예배순서

개 식 사 사 회 자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찬 송 460장 다 갈 이

성경봉독 눅 16:19-31 말 은 이

말 씀 부자와 나사로 말 은 이

기 도 말 은 이

한해를 허락하시고 이 설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고락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설날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진정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 도 다 갈 이

정점다리

잊혀지지 않는 사람

정연희

(전도사, 유치부, 제9-1교구 담당)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깊은 관심이 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 교역자들은 자신이 맡은 부서나 교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부흥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애쓰고 있다.

지금부터 약 17년 전의 일로 기억된

다. 내가 맡은 부서에 사회적으로 무시 못할(?) 역량있는 분이 교사일을 하게 됐다.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나도 모르게 주시하게 됐다. 아니 내 눈에 두드러지게 띄게 되었다. 보통 다른 교사들 보다 약 한 시간은 먼저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다른 교사들의 출석부와 사물함을 제자

리에 갖다 놓는다. 교실 바닥에 줄을 맞추어 놓고 나면 교사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마체 자기집에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친절함 주인같이 교사와 학생들을 맞아준다.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도 나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다. 특별히 요즘같이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기주의가 팽만한 이때에, '시대가 그러니까.....' 하면서 이해하다가도 간혹 사역중에 짙은 미소를 지어야 할 때를 당하면 향수처럼 더욱 그런 교사, 그런 성도들이 그리워진다. 그러나 어느 철학자가 말했는가. 과거를 그리워하며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유골을 안고 슬퍼하는 자와 같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제 '으양' 하고 태어난 어린아이에 같은 성도도, 때론 헬륨 같을 썩

도도, 사춘기 청소년처럼 질풍노도 같은 성도도, 건장한 청장년처럼 교역자가 말하기 전에 먼저 멋지게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어린 이웃을 도와주는 성숙한 성도도 우리 주님께는 모두 하나같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것을.

교역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맡고 있는 양무리를 언제나 내 사역 속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분의 모습처럼, 아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일 뿐임을.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런 분들로만 가득차게 될 때에 교회는 더욱 활기차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

토막소식

◆ 중등2부에서는 “96 지각생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부에 지각생 유형(느긋형, 헐레벌떡형, Sleeping형, 요리조리형, 횡설수설형, TV 시청형, 발목형)을 발표하며 지각생 명단을 반별로 게재(?)하고 있다. 이 운동이 전 교회학교로 퍼진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사랑부에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아무 활동도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랑부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사랑부로 보내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사랑부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에 1:1 혹은 1:2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함께 예배드리고 활동하며 사랑부 학생들의 영적, 지적, 육체적 성숙을 주님의 사랑으로 정성껏 돕고 있다.



◆ 제11교구 베드로전도회에서는 여전도회의 협조를 얻어 2월 24일(토) 성동구치소를 방문한다. 성동구치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전도집회를 열고(강사 김희수 목사) 준비해간 간식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갖고 그들에게 유익한 신앙서적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성동구치소를 방문한 후 오후 6시에는 식사를 하고 율레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모든 회원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지난 주일 12시 칼빈홀에서는 국제교구 모임이 있었다. 국제교구에 속한 여러 나라의 외국인인과 내국인이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준비된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었다.



◆ 대학부에서는 지난 1월에 이어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낙도선교를 다녀왔다. 이번에는 전남 고흥군 관하의 7개섬으로 낙도선교를 떠나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겨울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은미
(초등5부 전리6반)



1996년 1월 30일은 무척 눈물을 많이 흘린 날이었다. 초등5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성경읽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모습이 성경책에 나왔다. 찬송을 부르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죄를 뉘우쳤다. 기도가 시작되자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자꾸만 나의 죄가 떠올랐다. 나도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죄를 뉘우쳤다. 나에게 있는 죄가 어찌나 많았던지 한 시간 동안의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모자라는 시간이었다.

이날을 통해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득한 사랑과 은혜와 평화, 온 세계의 기쁨이 들어온 것 같았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였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죽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과연 얼마만큼의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과 몸,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 기도원의 사정으로 짧게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큰 감동은 이 세상 땅의 길이만큼 길었다. 나는 이제 항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야겠다. 또 주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죄를 뉘우치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이번에 임직원수련회에 참석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린다. 수련회를 마치고 밖에 나오니까 차가운 바람이 땀을 붙여왔지만 나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추운 줄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는 뜻깊은 임직원수련회

항지은
(초등5부 사랑8반)



나는 초등5부 사랑8반에서 부반장이 되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에 초등5부의 임직원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날 아침, 나는 들뜬 마음으로 일어나 예수님께 수련회에 가서 정말 신나게 놀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 아침도 대충 먹고 교회로 향했다. 교회로 갈 때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선물과 게임 등이 머리에 떠올랐다. 교회에 도착하여 나는 제일 먼저 시작기도를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게임을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읽자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요한복음을 편 후 페이지를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넷……” 휴, 페이지 수는 점점 늘어만 가는 데 모두 21장이 되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요한복음을 지루하게 읽어 나갔다.

9장째 읽는데 점심시간 10분 걸, 나는 너무 기뻐 빨리빨리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이게 웬 말씀?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정성껏 읽지 않고 자꾸 지루해하면 점심도 먹지 않고 굶으면서 다 읽겠어요.”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 울고 싶었다.

12시. 점심시간이지만 상관 않고 계속 성경을 읽었다. 눈물이 나오도록 하품을 했다. 11장을 다 읽고 점심을 먹게 해주셨다. 참 기뻐했다.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모여 기도드린 후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부분을 읽을 무렵 우리는 기도회를 가졌다. 그런데 이 시간이 내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조용한 피아노 소리와 함께 우리는 찬송을 불렀다. “예수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송가를 반복해서 부르며 다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나도 너도 선생님들도 모두들 울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도 안하고 불평만 해요. 바늘에 조금만 찔려도 아프다고 울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기도를 끝마치고 다시 요한복음을 마저 다 읽고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끝마칠 때 몸도 마음도 정말 가벼웠고 기분도 좋았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부터는 임원으로사 예수님을 훨씬 잘 믿고 전도도 많이 할게요.” 다짐했다. 오늘 이날이 방학중에 최고의 추억거리로 뜻깊게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

“예수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중등1부 겨울수련회를 마치면서

안윤정
(중등1부)

겨울수련회를 연다기에 처음에는 짜증도 나고 작년에 갔을 때 배가 아파서 고생했던 일을 생각하니 수련회를 가는 것이 맘에 놓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곳까지 발길이 닿았던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였으며 잠도 자면서 2박 3일간의 짧은 날들을 지내게 되었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였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정말 즐거웠다.

특히 산상기도회 때에는 몹시 춥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여서 움직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나의 죄 많은 몸과 마음을 회개하니 내려올 때 난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마치 날아 올라갈 듯 모든 게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이 산상기도회 시간에 기도했던 걸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나의 아름다웠던 눈물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굳었던 내 마음을 녹였던 프로그램은 ‘소말리아를 생각하며’라는 프로그램이었다. 화면을 통해 모잠비크,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등의 기아상태가 생생히 내 마음에 전달되었을 때, 순간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축복’받아 이렇게 잘 먹고 잘 잔 것을 하나님, 부모님께 무척 감사하고 감사하였다. 그래서 ‘사랑의 빵’이란 저금통까지 가져가 그 생명의 저금통을 꼭 채워 불쌍한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게 하려고 꼭꼭 다짐했다.

이밖에 한마음 그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의 커다란 상상력에 무척 놀랐다. 그리고 무척 즐거웠다. 천로역정을 할 때에는 옷을 조금 껴 입어서 무척 추웠으며 발이 얼어 걸을 때마다 발가락이 잘려나갈 것같이 아팠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걷고 또 걸었다. 그때부터 아픈 내 발가락도 천천히 녹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평소에도 뉴에이지에 관해 관심이 많았는데 목사님께서 아주 세밀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3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과 모든 선생님으로 인하여 내 믿음은 많이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많이 성장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